

세계 최초 무선 원격 시스템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을 개발한 (주)엔써티

2002년 IT 업계 최대의 화두는 무선이다. 이미 무선 이동 통신 기기의 1인 1대의 시대를 얼마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통한 서비스가 관건이다. 이러한 무선 이동 통신이 시스템 관리에도 적잖은 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통신 기기를 이용한 원격 시스템 관리 및 제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는 물론 고도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과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무선 원격 시스템 관리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업체가 있어 업계 화제다. (주)엔써티가 그곳인데, 여기서는 (주)엔써티를 찾아가 그들이 개발한 Ncerti RemoteCenter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엔써티

Tel : 02-2222-4406 Fax : 02-2222-4417
홈페이지 : <http://www.ncerti.co.kr>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4번지 삼미빌딩 2층

모IDC에서 미션크리티컬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K과장은 요즘 일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 그동안 K과장은 일년 365일 시스템 상태를 체크 및 관리하고, 장애 통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밤 늦고 외부 업무를 볼 수도 없었으며, 시스템 근처에서 움짱달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시스템으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업무에 역량을 쏟을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모두 최근 도입한 무선 원격 시스템 관리 및 제어 프로그램 덕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K과장은 자신의 PDA로 언제 어디서든지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장애 발생시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것은 물론 PDA를 통해 직접 시스템에 접근해서 시스템을 제어하거나 장애를 처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올해 IDC나 각 기업의 데이터센터, 전산 시스템실 등에서는 이러한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 각 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올해의 IT 관련

최고 기술 동향으로 무선을 꼽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이와 더불어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던 지난해부터 더욱 각광 받고 있는 SMS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여서, 앞서의 예와 같이 무선 이동 통신 기기와 시스템 매니지먼트의 만남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실제로 이미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동 통신 기기를 소유하고 있으며, SMS 시장 역시 전세계적으로는 2000년 7백54억달러에서 2002년 1천4백34억달러, 2003년에는 1천8백58억달러대로, 국내의 경우 2000년 1천4백20만달러에서 2002년 1천9백30만, 2004년 2천5백80만달러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는 물론 고도의 시스템 가용성 보장과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성능 향상 및 비용 절감,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요구는 무선 이동 통신 기기를 이용한 원격 관리 및 제어를



박성원 대표이사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내 시스템 관리 소프트웨어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아직 무선 이동 통신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시스템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으로도 선보인 적이 없었는데, 국내의 신홍 벤처 기업이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최초로 개발해 상용화했기 때문이다. (주)엔씨티와 그들이 개발한 무선 원격 시스템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인 Ncerti RemoteCenter가 그 주인공이다. 더욱이 지난 1월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KIDC)가 자사의 매니지드 서비스인 KIDC IMS 서비스에 이 제품을 도입해 모바일 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Ncerti RemoteCenter의 파장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 업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 최초의 무선 원격 시스템 관리 솔루션, Ncerti RemoteCenter

“지금까지 BMC소프트웨어의 패트roller나 IBM의 티볼리 등 몇몇 원격 시스템 관리 솔루션이 있었지만 대부분 유선 기반이며, 설령 무선 기반의 원격 시스템 관리 솔루션을 표방했다 해도 원격 접속 수준에 불과했고, 저희 Ncerti RemoteCenter처럼 원격 제어까지 가능한 제품은 전례가 없습니다”라며 (주)엔씨티 박성원 사장은 Ncerti RemoteCenter 솔루션이 차지하는 업계 위치부터 못을 박는다. 결국 이런 제품은 세계 최초, 업계 최초라는 말이다. 이미 2000년 10월에 일찌감치 특허 출원도 마친 상태다.

박 사장에 따르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웹 기반의 SMS 솔루션만으로는 문제 발생에 대한 실시간 원인 파악 및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자가 이동하는 중에는 시스템의 이상 유무나 장애 발생 등에 대해 즉각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며, Ncerti RemoteCenter는 휴대폰이나 PDA 등 무선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이동중에도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시 즉각 모바일 단말기로 통보해주는 것은 물론 원격지에서 시스템에 바로 접근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까지 제공해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준다고 한다.

Ncerti RemoteCenter의 구조는 RemoteCenter 코어 엔진과 RemoteCenter 모바일 웹 서버, RemoteCenter 사용자 인터페이스, RemoteCenter 데이터 관리, RemoteCenter 메시지 전송 모듈, RemoteCenter 이메일 전송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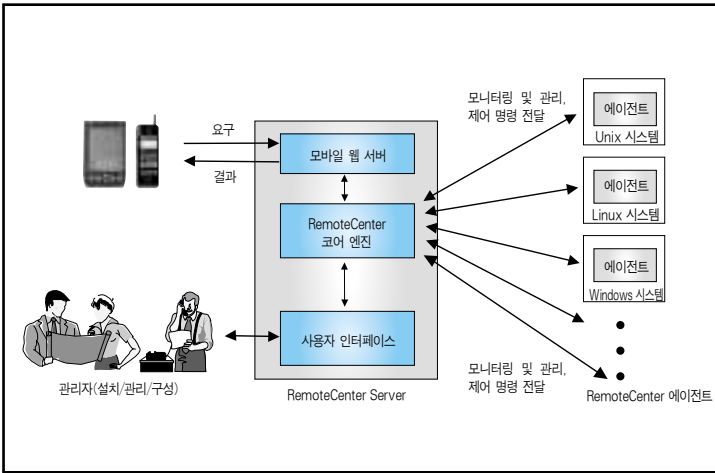
(주)엔씨티 홈페이지(<http://www.ncerti.co.kr>)

들, RemoteCenter 에이전트로 이뤄져 있다. 코어 엔진은 관리 대상 시스템의 모니터링과 관리 및 제어 명령을 스케줄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모바일 웹 서버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인터넷 인터페이스 서버를,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설치 및 관리, 구성을 위한 GUI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관리를 통해 모든 정보를 저장 및 구성하고 각종 이벤트를 저장하며, 메시지 전송 모듈을 통해 장애 및 이벤트 발생시 모바일 단말기로 메시지를 전송한다. 이메일 전송 모듈은 장애 및 이벤트 발생시 이메일 메시지 전송과 일반적인 이메일 기능을 수행한다. 에이전트는 다양한 OS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서버와 통신,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리 및 제어 정보를 RemoteCenter Server에 제공하고 사용자 요구 명령을 RemoteCenter Server를 통해 받아 실행한 다음 그 결과를 다시 RemoteCenter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며 특정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한다.

“이 제품은 단말기의 종류에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무선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모든 휴대 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Unix나 Linux, Windows 등 모든 하드웨어 플랫폼에 관계 없이 동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시스템 관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나 네트워크 관리 등도 수행해 관리 대상이 넓고, 엔진에서부터 모든 것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어떤 상황에서도 컨버전이 용이하므로 사업체의 특성에 따라 빠르게 구축 및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라며 박 사장은 Ncerti RemoteCenter만의 장점을 자랑한다. 그밖에도 자원의 신속하



영업/마케팅 총괄
이성열 상무이사



Ncerti RemoteCenter 아키텍처

고 효율적인 관리 및 제어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스템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원 관리자 및 사용자의 유연성 및 활동성을 제공하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해 궁극적으로는 고객 만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 적합하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Ncerti RemoteCenter는 2001년 11월 정통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소프트웨어공모대전, 12월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한 제 1회 모바일기술대상 등을 연이어 수상해 그 성능과 우수성도 인정받은 상태다. 광고나 홍보 한번한 적이 없는데, 입소문이 더 빠른지 벌써 (주)엔씨티에게 무선 원격 시스템 관리 솔루션에 대해 구매의 몸짓을 보내오는 업체도 줄을 잇는다. 이미 2001년 11월 KTF 투자기업협의회로부터 모바일 라이프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12월에는 한국비엠씨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원격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고 BMC소프트웨어의 패트룰 모바일 연동 서버 관리 및 제어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무선 이동 통신 기기와 시스템의 랑데부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Ncerti RemoteCenter와 (주)엔씨티의 이력을 곰곰이 따져보면 말이다. Ncerti RemoteCenter 원격 시스템 관리 솔루션은 이미 2000년 10월 특허 출원을 마쳤는데, (주)엔씨티는 이달로 이제 겨우 첫돌을 맞은 한살배기 KTF 사내 벤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Ncerti RemoteCenter가 (주)엔씨티보다 먼

저였다. 오히려 (주)엔씨티를 탄생시킨 일등공신이다. 내막은 이렇다.

“ETRI나 크레이 리서치, 한국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등에서 일하면서 대형 하드웨어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KTF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이동 통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문득 모바일과 시스템 기술을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엔지니어다 보니 휴대폰이나 PDA 등의 무선 이동 통신 기기로 원격에서도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KTF 재직중에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 실제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프로토타입이었던 셈입니다. Ncerti RemoteCenter는 순전히 필요에 의해서 개발된 경험의 산물이었으며, 당시 향후 가장 주목받을 IT 분야로 무선과 시스템 관리가 급부상하고 있었던 만큼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라며 박 사장은 RemoteCenter와 (주)엔씨티의 내력을 읊는다. 그때가 2000년 10월경이었다. 박 사장은 바로 특허를 출원하고 KTF 사내 벤처로 신청하는 등 약 3개월의 준비 끝에 지난해 2월 드디어 (주)엔씨티를 창업하게 된다. 그것도 혈혈단신으로. 지금은 17명 엔씨티맨을 보유한 어엿한 벤처인이 되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주)엔씨티가 정작 세상에 알려진 것은 뜻밖에도 데이터 백업 솔루션 분야에서였다. 우연찮게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고민을 듣게 된 것이 그 계기였다. 즉 1천5백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160TB라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에 대한 백업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존의 백업 솔루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작업이어서 감히 엄두도 못내면서. 그러나 (주)엔씨티가 보기에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은 문제였다. 이미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대형 시스템 장비를 다루면서 데이터 압축 및 백업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던 박 사장의 진두지휘에 의해 (주)엔씨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간편하고 빠르게 백업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단시간내에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하게 된 (주)엔씨티의 백업 솔루션이 바로 Ncerti BackupXcelerator이다.

(주)엔씨티가 만들면 어김없이 세계적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모양이다. 이 제품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대용량’ 백업 솔루션이라는 수식어구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썬으로부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도 한 (주)엔씨티는 실제로 지난해 9월 썬의 지원

을 얻어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삼성물산과 함께 미국 썬에서 엄격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Ncerti BackupXcelerator 제품은 10TB 용량의 데이터 백업 BMT를 수행하는 데 당초 10일이 소요될 것이라던 주위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고 채 5일도 안되 백업 성능 시험을 마치는 놀라운 속도와 성능을 자랑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더이상 말이 필요없었다. 이에 따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즉각 이 제품을 도입했으며, 잇달아 12월에 KTF와도 백업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하자 이 제품은 데이터 백업 솔루션 업계에 크나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덕에 Ncerti BackupXcelerator는 RemoteCenter보다 먼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주)엔씨티는 벤처 창업 첫해였던 지난해 이미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이익을 낸 이례적인 기업으로 벤처사에 기록되게 되었다.

올해는 도약의 해

“올해 목표는 국내 10위권 안에 드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되는 것이며, 매출 목표도 100억원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라며 올 한해 다부진 포부를 밝히는 (주)엔씨티는 아무리 보아도 품새가 한살배기같지 않은 것이 여간내기가 아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엔씨티는 내공이 강한 벤처다. 지난 한해 대단한 솔루션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장성세하는 법이 없었다. 그 혼한 보도자료 한번 내지 않았을 정도다. 그러면서도 창업 첫해 순이익을 내는 이번(?)을 낳은 당찬 벤처다. 이는 철저하게 박 사장의 신뢰받는 기업, 속이 짝 찬 기업이 되고자 하는 마인드때문이기도 한데, 철저한 사실 검증이 기반된 내용이 아니면 일체 보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정도다. (주)엔씨티는 그런 박 사장을 그대로 닮아 진정한 실력으로 말하는 벤처의 정도(正道)를 걷고 있다.

그리고 2002년 벤처 2년차, (주)엔씨티는 올해를 본격적인 도약의 해로 삼고 있다. 먼저 본격적으로 영업과 마케팅에 돌입하고 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 시작으로 채널 영업망을 구축중인데, 이미 12개사를 확보한 상태다.

(주)엔씨티의 기술 방향은 계속해서 백업과 관련된 데이터 관리 솔루션과 원격 시스템 관리 솔루션에 집중할 것이다. 백업 솔루션의 경우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KTF라는 큰 레퍼런스 사이트를 통해 이미 그 실력과 안



(주)엔씨티의 직원들

정성은 보증받은 셈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과 홍보에 신경쓸 작정이다. 한편 (주)엔씨티는 올 상반기의 가장 큰 시장을 무선 원격 시스템 관리 및 제어 솔루션 영업에 두고 있다. 이미 KIDC를 시작으로 한걸음 내디뎠는데, 주로 IDC를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다양한 시스템 하드웨어 업체들과 제휴해 원격 제어 소프트웨어를 번들로 제공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서, 나아가 SI 사업에도 관심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주)엔씨티는 IT 허브 사이트 구축 및 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Sun Enterprise 10000 사용자 그룹 사이트를 결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 중이다. Sun Enterprise 10000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한 사용자 그룹을 운영해 기업 커뮤니티로 진화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 그룹 사이트는 썬의 신제품에 대해 평가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는 등 벤더와 고객 사이의 요구 및 문제 해결을 원활하게 해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썬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귀뜸한다.

이러한 국내 사업과 함께 올해는 해외 진출도 모색할 계획인데, 현재 AOL과 야후를 중심으로 (주)엔씨티의 백업 솔루션에 대한 벤치마크 스케줄이 잡혀있는 상태이며, 이를 기반으로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세워 적극적으로 해외 공략에 나서겠다는 글로벌한 계획도 설계해놓았다.

올 한해 (주)엔씨티의 행보가 이대로만 계속된다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10위권 진입은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